

지역 소식 통

정읍시보건소, 물빛축제
현장서 감염병 예방 캠페인

정읍시보건소가 물빛축제 현장을 찾아 여름철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보건소는 지난 8일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열린 '2025 정읍 물빛축제'와 연계해 폭염과 고온다습한 기후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감염병과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생활 속 감염병 예방수칙을 중심으로 한 안내를 진행했다. 또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결핵 및 HIV 무료검진 등 보건소의 감염병 관련 사업 정보를 알렸다. 또한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해 예방수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5년 주민세
13억7100만원 부과

정읍시가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 총 5만 4469건 13억 71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는 복지, 안전, 환경 등 지역사회 공동경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에게 1만 1000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 5000원이 부과됐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는 각 세대와 사업장에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 기기 △지방세 ARS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큰 호응

부안군, 저소득층 70세 이상 어르신 수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기간 넓혀

부안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저소득층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인공관절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2년 12월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 2024년 2월에는 기존의 수술 전 신청 방법에서 수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으로 지원 기간을 넓히는 개정을 통해 주민편의에 일조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인 7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으로, 지원범위는 한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200만원 한도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진단서(또는 소견서),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지고 부안군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2023년에는 47건, 2024년 60건의 지원이 이루어져 총 1억70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됐으며, 올해 목표는 60건, 6,000만원 지원으로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군은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도 군민 맞춤형 보건행정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밖의 문의 대표번호는 부안군보건소(☎063-580-3812)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복분자 · 수박 등 농특산품과 함께한 축제의 장

고창군-전북현대축구단,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열린 전북현대 홈경기서 농특산물 홍보

고창군이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도현)과 손잡고 복분자와 수박 등 농특산물 홍보 행사를 열었다. 지난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열린 전북 현대의 홈경기에서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인 복분자 수박 등을 홍보했다. 이번 경기는 'Fruits Friday' 테마로 복분자 수박, 복숭아 등 지역별 과일이 소개됐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경기 시작을 앞

리는 시축을 선보였고, 고창의 대표 농특산품인 복분자즙과 수박 시식회가 마련됐다. 선수들과 관중들은 고창의 신선한 농특산품을 직접 맛보고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다. 특히 고창 대표 농특산품인 복분자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지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고창군은 지역 농산물의 판로 개척

과 더불어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전북현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현대와 함께 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한 고창 농특산품을 많은 관중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홍보 마케팅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부지 현장 점검

부안군은 지난 6일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부지를 정화영 부안 부군수가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올해 말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앞두고 사업 부지를 면밀히 확인, 향후 일정과 준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총 1,221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올해 12월 초까지 완료한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화영 부안 부군수는 "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광·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



부안군은 지난 6일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부지를 정화영 부안 부군수가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청년 목소리 경청

'202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와 소통 시간 가져

정읍시가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 50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주간의 아르바이트를 마친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이야기하는 소감문 발표를 시작으로 이학수 시장과의 소통의 시간·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시장은 "비록 4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아르바이트 경험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이 정읍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값진 경험담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한솔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학생은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 줬 자연스레 정이 들었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책임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 활동 중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마다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은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과 지역사회를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에도 50명을 선발해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전동스쿠터에 IoT 단말기 부착

고창군이 어르신들의 전동스쿠터에 최첨단 IoT 단말기를 부착해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호 조치에 나선다. 지난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LoRa IoT를 활용한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구축 사업이 추진중이다. 핵심은 전동보장구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IoT 단말기다. 자이로 센서와 충격가속도 센서 등을 통해 넘어짐 등의 사고를 정확히 감지한다. 여기에 LoRa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고 발생시 고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자동 신고된다. 신속한 구호 조치로 전동보장

구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이동 경로 분석과 위험지역 파악 등 빅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사고 다발 지역을 파악해 도로 환경 개선 등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유창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조교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IoT 기반 전동보장구 안전 서비스를 통해 고창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조사료 스팀가공장비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벼짚을 스팀으로 가공해 축산물 품질과 사료 효율을 높이는 '조사료 스팀가공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축산농가 15곳을 선정해 장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벼짚을 고온·고압의 스팀으로 처리해 조사료의 소화율과 기호성을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한육우·낙농 50두, 양·혹염소 300두, 사슴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며, 사업비는 총 9900만원 규모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보조금은 50%이며, 농가는 1대당 최대 68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포함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접수 결과 총 28개 농가가 신청했고, 시는 사육두수와 농가별 특성을 반영한 배점 기준에 따라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사육환경과 규모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 조사료를 자체 가공·급여할 수 있게 됐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조사료 스팀가공장비는 축산물 품질 향상뿐 아니라 사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는 장비"라며 "앞으로도 정읍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